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삶은 곧 승진 좌천의 갈림길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사람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느 사찰에서 항상 시식을 지내면 넓은 돌 밑에 밥이나 과일도 갖다 놓곤 했습니다. 날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큰 구렁이가 그 돌 밑에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한 이년 남짓 살다보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찾은 것과 똑같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절 스님 한 분께 "스님, 저도 스님처럼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소리

를 기다릴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 먹고 또 한번 받아 먹고 또 한번 받아 먹고 세 번 받아먹는데 삼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깊은 의지와 깊은 뜻이 거기 서려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구렁이는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했는데, 너무나 예절하게, 빠른 남도록 애절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게끔 스님이 자손없는 짐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일이기에 여러 분들이 듣기에는 황당할지 모르지만 부

"만나고 보고 듣고 가고 오는 것 하나에서 열까지 고정된게 없어요 그런데 집착하니 고통 생기죠"

는 도승들이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스님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셨더라고요. 또 구렁이가 말하기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사즉사 하더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첫째는 네 도반 즉 300마리의 뱀들을 교화시켜서 이 도리를 가르쳐줘야 하고, 둘째는 항상 법당에서 스님이 법을 설하시거나 예배를 올릴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기고 들어야 하며, 셋째는 삼년동안을 이슬만 받아 먹고 살아야 하며, 넷째는 사람이 먹는 간장을 얻어 먹어야 하는데 간장을 넣어서 가져 먹어야 하는데 공양주가 간장을 뜨러 올 때 떨어지는 간장 방울을 얻어 먹어야 마지막에 인간으로 환탈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구렁이는 이슬만 받아 먹으면서 자기 동료들을 교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항상 법당 근처에 몸을 숨기고 스님들이 예배 올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 안하고 그 뜻을 배울 수는 없습니. 또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여려하게 살 수도 없고. 모두가 다 노력없는 안 되죠. 그런데 그 구렁이는 그걸 이겨냈습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공양주가 간장 떠내면서 그 방울 떨어지

침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모습 벗기 어려워

우리는 수없는 광년을 거쳐오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모습을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인간까지 온 거라고 믿습니. 믿는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야죠. 지금 진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오장육부 속에 모습과 의식과 생명들이 다 들어있으니 그걸로써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차원이든지 모습 하나를 가지고 나올 때 살아온 습때문에 그 모습 벗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 토끼라면 토끼 모습을 벗기 어렵고 새라면 새 모습을 벗기 어렵고, 이렇게 인간이 되기까지는 부처님 경지에 다가서야만 된다고 했습니. 그런데 사람이 돼 가지고도 99%가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

육조 스님은 '자성이 본래 여려한 줄 어찌 알았으리요' 했단 말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불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려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들고 내고 하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만법을 들고 낼 수 있는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 이걸 말로 해서는 실감이 안 날테니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진정으로 믿는게 우선

부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어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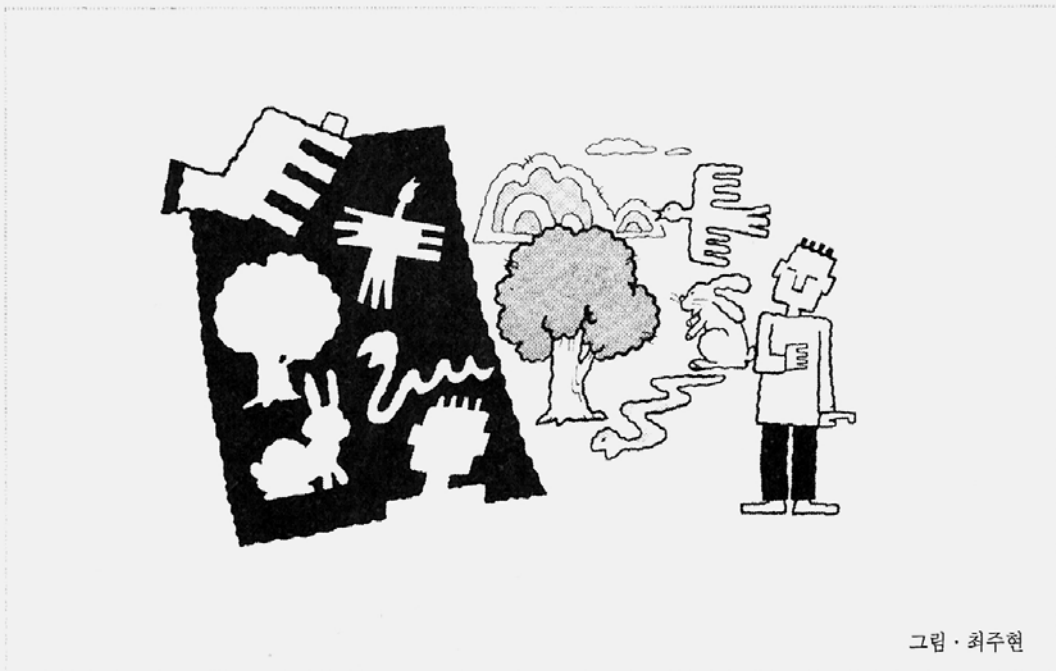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물질계 50% · 정신계 50% 계합 '하나' 돼야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놓으셨습니. 지금 물질과학이 50%로 등장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정신과학이란 걸 보충해서 100%를 만들어서 굴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질계와 정신계가 계합이 돼서 하나로 돌아가야 할텐데, 그리고 물질계를 이끄는 것이 정신계라는 걸 알아서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 뿌리를 믿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무시하고 뿌리 없이도 썩어 저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 모두들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정신계의 발전이 더디는 것입니.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들어서서도 50%의 광년이 더 지나야 하는데 중신계를 무시하고 산다면 50%의 광년이 지난 동안 허송세월 하는 겁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나는 요새 말입니. 물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또 사람들에서 살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 짐승들은 육을 잡아 먹고 잡아 먹지만 사람들은 심성, 즉 말하자면 정신을 맺고 맺고 삽니. 이 세상이 모두 그렇단 말입니. 이런 걸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자나깨나 머리 속에서 뱅뱅 돌고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데 불쌍하다고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이거를. 세상에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무의세계로 인해서 유의세계가 돼야 하는데, 무의세계는 저버리고 유의

계만 알고 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보면 귀신도 나와 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 보이지 않는 것도 나의 보이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니까 귀신이 아니라 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탈 때도 관하고 타고 내릴 때도 감사하게 관하고 내리라고 말을 합니. 어딜 가든지 '이건 뭐 괜찮을거야' 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겠다고 항상 자기 자성불을 진짜로 믿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관하십시오. 사업을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너 이 겁데기를 리드해 나가는 주인이 하는 거지, 심부름 하는 겁데기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관하시고 이렇게 진짜로 아신다면 살기가 그렇게 각박하

지 않아요.

찰나에 화하고 나들 뿐

그런데 벌써 고(苦) 집(集)이 있다면, 집착을 하면 고가 생긴다 이런 건데, 만약 우리가 고집이 없다면 즉, 그렇게 모든 걸 말리고 갈 수 있다면 고를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착을 하는 것도 아닌 게 된단 말입니. 이 소리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정된게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들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대로 여여함을 알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苦)라는 것과 집(集)이라는 것도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가지고선 오히려 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팔정도나 육바라밀이니 하는 것도 오히려 이름 때문에 그냥 속 넘어가지 못하고 걸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 모든 것이 그렇습니.

일불이 만불 만불이 일불

예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항상 평등하게 보라 이라는 것은 자기가 수없는 역경을 거쳐 오면서 어떤 것이든 안 되어 본 게 없고 어떤 일이든 안 해본게 없기 때문입니. 그러니 그것을 내 모습으로 바라, 모든 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마음과 같고 내 슬픔과 같고 또 내 배고픔과 같으니 모두가 내 도량에서 나 아닌게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진리가 바로 부처님 법이죠. 부처님이 먼저 깨달으셔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진짜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진짜 스승이시죠.

그래서 그 스승의 은혜에 대한 보답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하지 부모가 자식에게 공경받을려고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하면 과거의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저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꼭 차 있죠. 그래서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라고 그랬습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 옛날에 서역에서 몇 백명, 몇 천명이 수십명씩 조를 지어서 중국으로 이 법을 퍼러 가

18편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41)

기회는 언제나 '지금·여기' 그대 문앞에 있다

"수행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지금·여기가 있을 뿐이다. 오늘을, 지금 이순간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직시하면서 코끼리처럼 걸어가라. '지금·여기'가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근본 자리이며 바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자 영겁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중생의 가정과 일터가 곧 여래의 처소이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구경계이다. 지금·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다.

순간·순간이 그대로 영원이요 무한이다.

오늘 이 세상에 나왔으면 오늘 알아야 한다."

우리를 누구나 수행자이다. 세속의 인연을 펼쳐버리는 않았다해도 삶의 목표를 진화에 두는 한 우리는 모두 수행자이다. 아니, 세속에 발이 묶여 도무지도(道)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다해도 삶이 곧 진화나 퇴화의 갈림길일진대 우리 모두는 원한권 원하지 않건간에 수행자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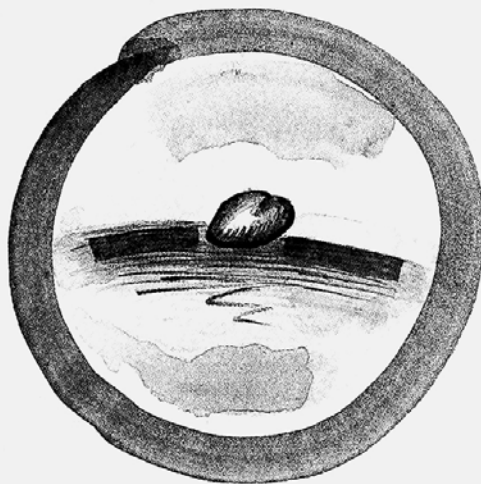
수행자에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한 걸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순간 순간마다 내가 내 인생의 발에 뿌린 마음의 씨앗은 영겁을 두고 어느 때이든 싹이 트고 자라나서 내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과보가 돌아 올 것이고 게으른 마음을 심으면 보잘 것 없는 결과가 돌아 올 것이며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어찌 한 순간만을 망설일 수 있겠는가. 오로지 엄념참회하고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씨앗, 가장 질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괴로운 일은 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고 오로지 즐거운 일, 흉족한 과보는 내 것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물론 그것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라도 가능한 일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순간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선행이고 참회이면 된다. 지금이 곧 그대로 수행처이면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하루살이'로 산다. 하루살이라니까 필대로 되라는 식의 찰나주의·향락주의인 게 아니라 지금·여기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식의 삶을 산다. 최대의 관심과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지금 여기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같이 산다.

수행자들과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 점에서 다르다. 우리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생각하고 내일에 희망을 건다. 내일이면 사정이 더 좋아지겠지, 오늘은 여건이 적당치 않으니 내일을 기약하자...는 식에 더 익숙하다. 그러나 내일은 없다. 오늘이 있을 뿐이다. 내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결과로서 내일이 오고 다른 내일은 없다. 고로 다가올 모든 내일은 오늘 속에 있다. 오늘 최선을 다 하면 최선의 내일이 그 속에 있고, 오늘 방일하면 호드러진 내일이 또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거든 오늘을 희망차게 살아야 한다. 기쁨의 내일을 바라거든 오늘을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내일이 보람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속에 보람을 심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를 바라는 삶이 아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오늘을 정화하는 삶이다. 지금·여기를 정토로 만드는 삶이다. 지금·여기를 여래의 처소로 가꾸는 삶이다.

오늘·지금·여기는 내게 주어진 황금의 기회이다. 절호의 찬스이다. 오늘·지금·여기서 잘하면 다 잘되고 오늘·지금·여기서 잘못하면 다 잘못된다. 고로 기회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언제나 내 문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절호의 찬스를 여겨 허송하겠는가. 지금·여기서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달리 무엇을 또 바라겠는가. 무엇을 또 기다리겠는가. 천리 길을 가고 싶어도 한 걸음이 확실치 않으면 갈 수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야 천리길을 간다. 고로 한 걸음이 천리길이고 천리길이 한 걸음이다.

수행자는 그래서 하루살이로 산다. 아니, 누구라도 하루살이로 살아야 한다.

협찬: 락계신